

전후 70년 주교단 메시지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이야말로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지금까지 1995년 <평화를 향한 결의,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2005년에는 <비폭력에 의한 평화의 길`-지금이야말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등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해 왔습니다.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제 우리는 다시 평화를 향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 교회는 인간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에게 있어서 올해는 제2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 폐막으로부터 50년이 되는 기념할 만한 해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전반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교회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반성하면서 교회는 종교적 영역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인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 바티칸 공의회를 마치며 발표한 <현대세계현장>의 모두(冒頭)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이같은 자각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현대인의 기쁨과 희망, 고뇌와 불안,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 고뇌와 불안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들 속에 그리스도 제자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¹⁾”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 특히 억압된 사람들과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²⁾.

2. 전쟁 포기를 향한 결의

1945년까지 이루어진 한반도 등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중국이나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 행위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인에게도 비참한 체험이었습니다. 1945년 3월 10일의 도쿄 대공습을 비롯하여 일본의 많은 도시에 대규모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지상전에서는 일본이나 외국 병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 투하된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8월 9일의 나가사키 원자폭탄. 이와 같은 체험들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으며 주권재민, 전쟁포기,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조로 한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1946년). 일본은 이 평화헌법을 기반으로 아시아 각국과 신뢰와 우호 관계를 쌓고 발전시켜나가기를 기원하며 오늘날까지 전후 70년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한편 세계의 가톨릭 교회는 동서 냉전과 베를린 벽 붕괴 등과 같은 시대를 경험하며, 군비확산 경쟁과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점차 명백히 해왔습니다.

요한 23 세 교황은 회칙 (回勅) <지상의 평화>에서 “원자력 시대에는 결코 전쟁이 침해된 권리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³고 언급하였습니다. 제 2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세계현장>은 군비확산 경쟁을 반대하고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⁴ 1981 년,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이 히로시마에서 언급한 “전쟁은 인간의 소위입니다. 전쟁은 인간 생명의 파괴입니다. 전쟁은 죽음입니다”에서도 전쟁 거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 온 역사적 경위에 입각한다면 지금 우리 일본 주교단이 일본국 헌법에 명시된 불전(不戰)의 이념을⁵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 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의 요청이며, 종교자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의 간절한 염원이며, 인류 전체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인 것입니다.

3. 일본 교회의 평화에 대한 사명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특별히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사명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서 평화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명에 대한 자각은, 물론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병기의 참화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 교회가 취했던 자세에 대한 반성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합니다.

1986 년 9 월 26 일,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주교협의회연맹총회의 미사에서, 시라야나기 마고토(白柳誠) 도쿄 대주교(당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일본 주교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일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안겨준 비극에 대하여, 하느님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관여한 사람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 천만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등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주교협의회 회장으로서 주교단의 총의를 대표하여 언급한 것이었습니다.⁶ 또한 일본 주교단은 전후 50 년과 60 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평화 메시지(상게;上掲) 안에서,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취한 교회의 전쟁 책임을 반성하고, 그에 입각하여 평화를 향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역사인식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의 문제

전후 70 년이 흐르고 전쟁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점점 쇠퇴해가면서, 일본이 식민지배나 침략 전쟁 속에서 행했던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의 역사를 다시 쓰고 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특정비밀보호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헌법 9 조를 바꾸고 해외에서 무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흐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만이 아니라 일본 주변에 있는 각국의 정부에서도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주변 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자위권을 이유로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끈질긴 대화와 교섭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오키나와가 아직도 본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지(基地)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게다가 오키나와현의 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군비우선과 인간 무시의 자세는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지금과 같은 세계 정세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지금 세계를 둘러보자면 각지에서 군사적 대립이나 테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민족 간의 대립 그리고 종교의 이름을 빌린 분쟁이 격해지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이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 아이들, 소수 민족이나 종교적 약자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참상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 3 차 대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근심을 표명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충고하였습니다.⁷ 지금 세계는, 결국은 힘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성을 존중하는 이성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폭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폭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반복해서는 인류 전체가 파멸을 향하게 될 뿐입니다.

세계는 글로벌화된 기업이나 금융 시스템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기후 변동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세계의 빈곤, 환경, 격차와 배제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구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지니고 평화와 상호이해를 위한 건실한 노력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이 히로시마에서 언급하였던 <평화 호소>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목표는, 항상 평화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들을 우선하여 먼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거의 잘못, 폭력과 파괴로 가득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존중스럽게 하는 것이며, 인간의 운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향하는 길만이 평등, 정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머나먼 꿈이 아니라 현실로 삼는 길인 것입니다”⁸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복음 5·9) 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전후 70 년이자 제 2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 년을 맞이하여,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위하여 임해 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새로이 합니다. 우리 일본 가톨릭 교회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제 종교의 신앙인들과 더불어,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새로이 결의합니다.

2015 년 2 월 25 일

일본 가톨릭 주교단

-
- 1 제 2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헌장>(1965 년) n.1
-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2013 년) n.182 “사목자는 과학의 공헌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 생활에 작용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는 사적 영역에 한정되어야 하며 천국을 위하여 영혼을 정화하는 데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 3 교황 요한 23 세 회칙 <지상의 평화>(1963 년) n.67
- 4 <현대세계헌장> n.81
- 5 일본국 헌법 전문(前文) “일본 국민은 항구의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기로 결의하였다”, 동 9 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고, 국권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지(保持)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6 1986 년 6 월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 정례 주교총회
- 7 프란치스코 교황 “제 1 차 세계 대전 개시 100 주년 전몰자 추도 식전 말씀” 이탈리아, 포글리아노 레디푸글리아(Fogliano Redipuglia)의 위령제에서(2014 년 9 월 13 일).
- 8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히로시마 평화 호소>(1981 년 2 월 25 일) n.5